

EU 농산물 시장 및 농업소득 전망 2010-2020*

민 자 혜

1. EU 농산물 시장 전망

지난 12월 발표된 EU의 '농산물 시장 및 농업소득 전망 2010-2020'에서는 향후 10년동안 EU 상품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야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월 발표된 EU의 '농산물 시장 및 농업소득 전망 2010-2020'에서는 향후 10년간 상품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야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전망에서는 특히 농업과 에너지 시장 간의 연결, 경제적 보완 경로 등 제3장에서 분석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조건(baselin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U 농산물시장 전망은 선물시장이나 거시경제, 정책 변수 등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 여건은 여전히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업 및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의 변화,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 결과, 각 국에서 추진 중인 FTA 등 양자/지역간 협상 추이, 재생에너지 정책 등도 EU 농산물시장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회복과 재생에너지 혼입 의무화로 한 기대수요 증가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한편, EU의 산출량은 최대 생산가능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예상되는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성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곡물 단수는 느리게 증가할 전망이나, 단수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본 내용은 2010년 12월에 발간된 EU의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보고서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자혜 연구원이 발췌·번역하였다(jhmin@krei.re.kr, 02-3299-4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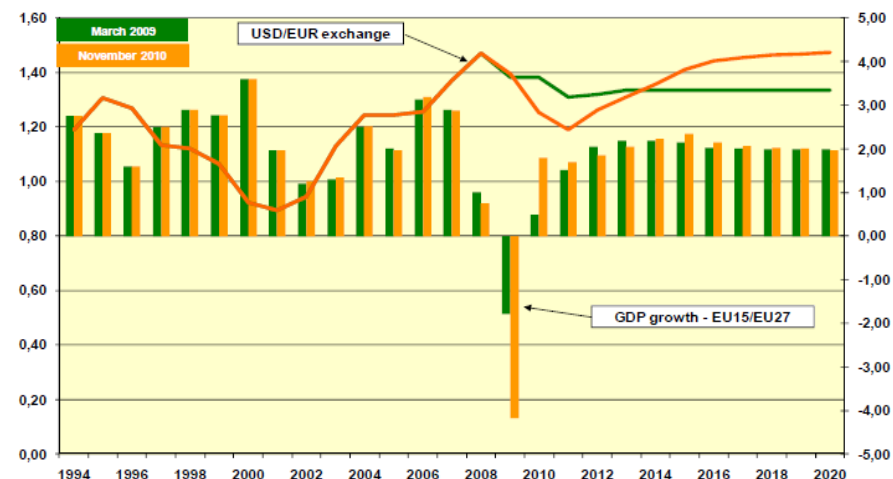
지속적인 유로화 약세가 전망되어 세계 시장에서 EU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세계 공급은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는 세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세계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게 된다. EU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 하에서는 단수와 국제수요 증가율에 대해 대안적인 가정을 도입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에, 상품시장은 시장개입 없이 전망기간동안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탈지분유 시장은 국제수요-공급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소득도 노동임금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분석에 도입된 가정: 정책, 경제와 세계 시장 환경 등

EU 농업시장과 소득에 대한 2010-2020년 전망은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거시변수가 안정을 유지하며, 세계시장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CAP는 자체 점검 규정을 준수하고, 세계무역정책은 농업부문 UR협상을 준수할 것으로 가정한다. 거시변수에 대해서는 EU의 GDP 성장률을 2%로, 달러/유로 환율이 1.4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상품 가격은 기업이 중·단기간에 글로벌 식품 수요의 성장, 바이오연료 분야의 성장, 그리고 곡물 생산성 증가율의 장기적인 감소세 등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 GDP 성장률과 환율에 대한 기본가정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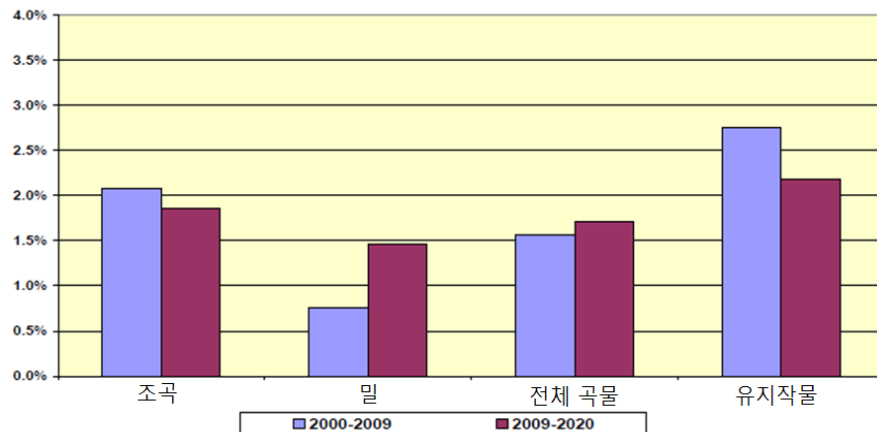
EU 곡물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엄격한 시장 조건 하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곡물

EU 곡물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낮은 재고량, 장기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 수준 유지 등 엄격한 시장 조건 하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 증가는 대부분 단수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이며, 증가율은 연평균 0.5% 수준으로, 안정적인 곡물 생산지대에서 곡물간의 지역적 재배치를 통해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망기간동안 곡물 분야에서의 무역수지는 바이오연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입 증가로 인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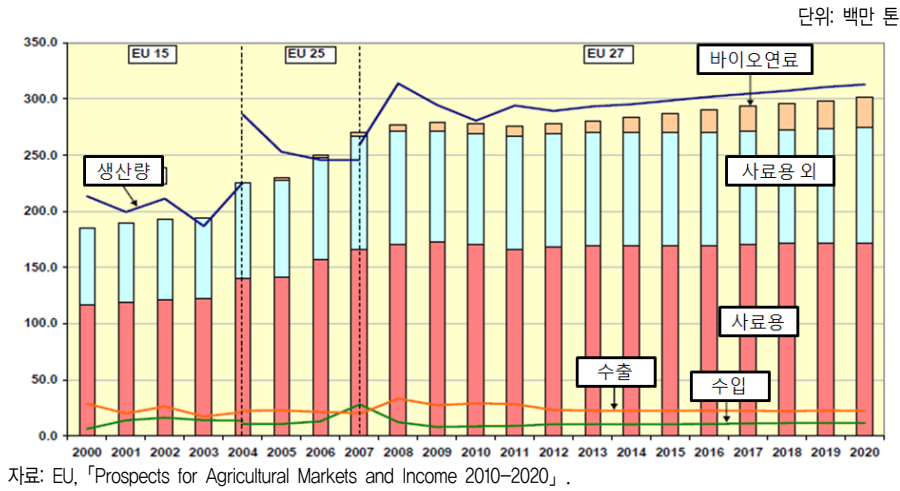
그림 2 전 세계 곡물시장 연평균 성장률 전망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EU 내에서의 곡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EU회원국에서 채택 예정인 2008 RED(Renewable Energy Directive) 프레임워크로 인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매스산업 신흥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곡물 소비 증가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그림 3 EU 곡물시장 전망(2000-2020)



유지작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의 가격 급등 및 수요 증가로 인해 EU 유지작물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 증가는 대부분 단수 증가와 유지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한 데서 기인하는데, 대부분은 타 곡물에서 유지작물로 전환한 면적이다. 유지작물에 대한 EU 역내 수요 증가는 바이오연료와 바이오화학산업의 신흥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8 RED 프레임워크의 개시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U의 유지작물은 유지작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의 가격 급등과 수요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EU 유지작물 시장 전망(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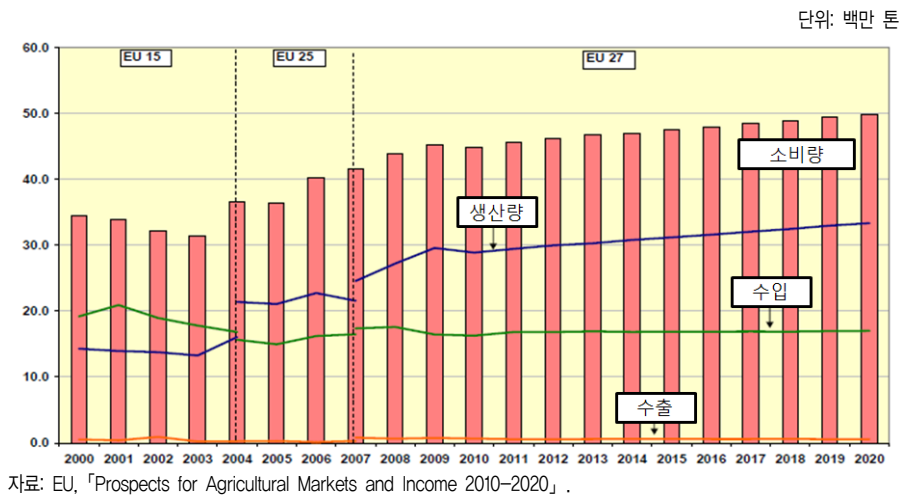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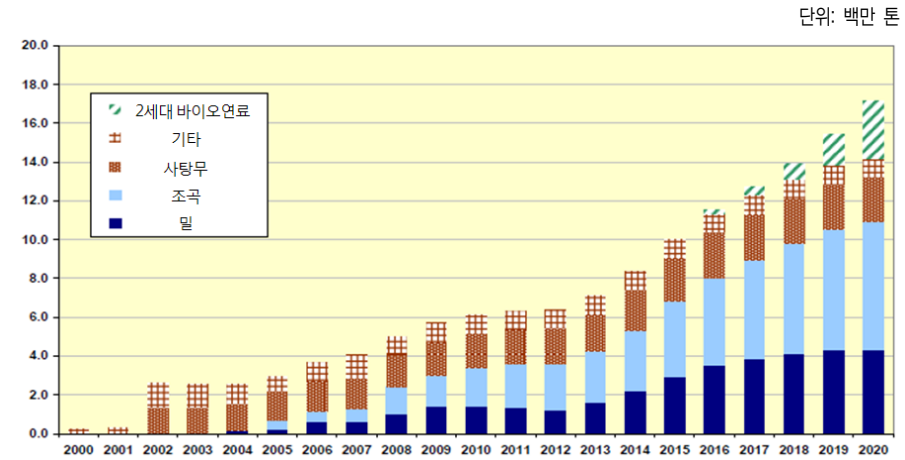


그림 5 EU 바이오연료 생산 전망(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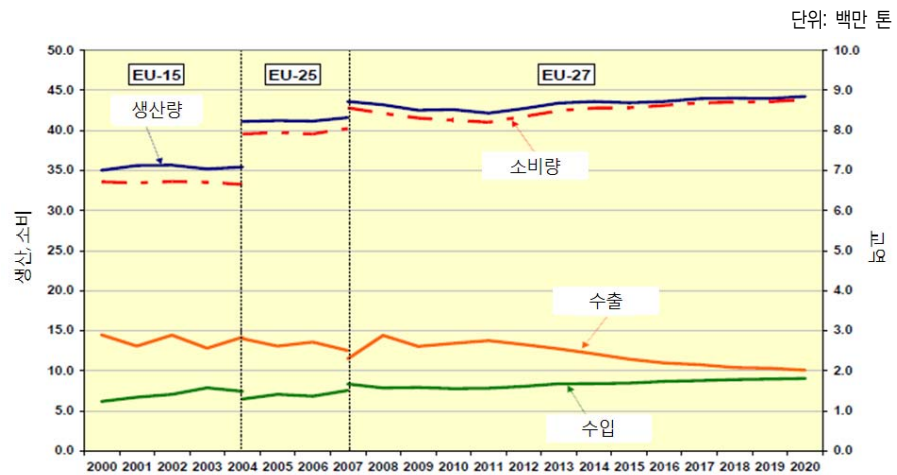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육류

2020년 EU의 총 육류 생산량은 4,440만 톤으로, 2009년보다 4%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육류 생산량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감소했던 지난 분기 이상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률은 연평균 0.3% 수준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EU의 총 육류 생산량은 4,440만 톤으로, 2009년보다 4%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6 EU 육류 시장 전망(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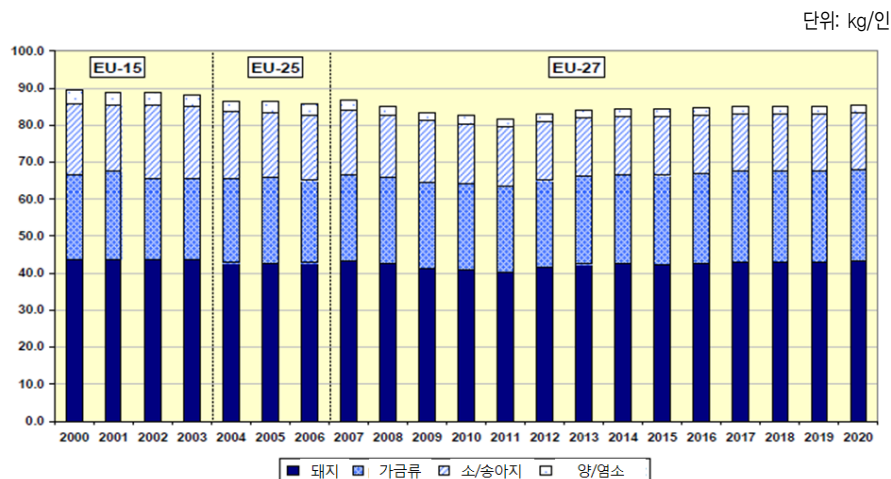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축종별로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 간에 전망은 다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아지와 양/염소 생산량은 각각 7%, 11% 감소하는 반면, 돼지와 육계 생산은 각각 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반추동물은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와 돼지고기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육류 생산량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소비량을 기준으로, 2020년 EU의 육류 소비량은 2009년에 비해 2% 증가한 85.4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량 증가율은 육계의 경우 6%를 상회한 데 반해, 돼지고기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0년 EU의 1인당 소비량은 돼지고기가 43.3kg로 EU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육류이며, 그 다음으로는 육계 24.7kg, 소고기 15.4kg, 양/염소고기 2kg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EU 육류 1인당 소비량 전망(2000-2020)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전망기간동안 육류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출 감소로 인해 EU의 순 교역 포지션은 악화될 전망이다. 육류 수입은 2020년까지 총 14% 증가할 전망이다 데 반해, 수출은 23%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육류 순수출량은 약 20만 톤으로, 축종별로는 돼지고기가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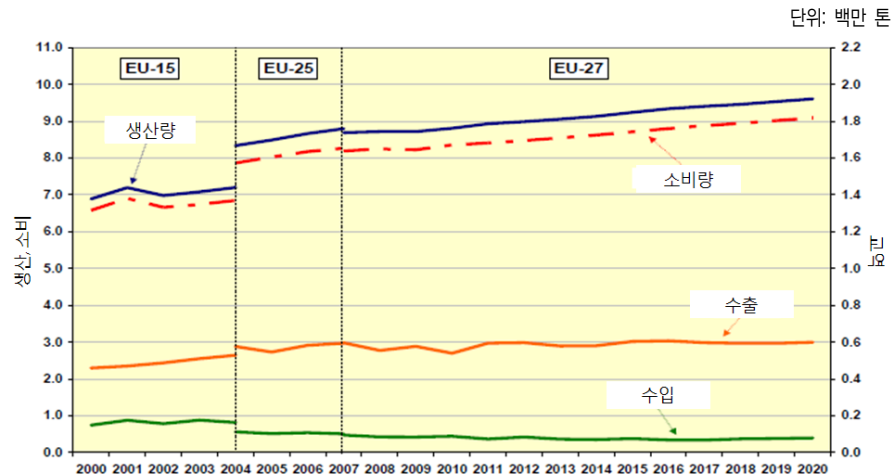
낙농제품

거시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우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유 생산량은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EU의 우유 생산량은 2009년 대비 4% 정도로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20년 EU의 우유 생산량은 2009년 대비 4%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치즈와 신선 유가공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고부가가치 낙농제품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신선 유가공품(우유, 생크림, 요구르트 등)의 생산량은 약 8%, 치즈 생산량 또한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즈 수출은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며, EU의 전세계 치즈 수출 점유율도 30%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EU 치즈 시장 전망(2000-2020)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2020년에는 EU 전지분유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9년 24%에서 3% 하락한 21%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지분유 생산량은 2009년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시장의 수요 강세로 인해 중단기에는 EU의 전지분유 수출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9년 24%에서 3% 하락한 21% 수준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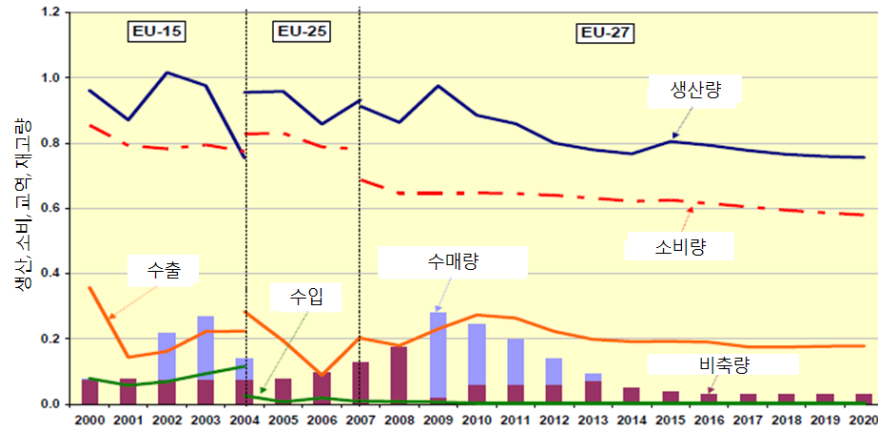
버터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국내 수요는 2백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쿼터제가 폐지되는 2015년에는 생산량이 증대되고, 일시적인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지분유 수출은 유로화 강세와 다른 수출국들의 공급 증가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뿐만 아니라 EU의 역내 수요도 약세가 전망됨에 따라, 가격 역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의 공급 압력이 EU의 생산량 감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탈지분유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과 장단기 시장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국제 수요-공급 여건, 시장의 개입 재고수준 완충 능력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림 9 EU 탈지분유 시장 전망(2000-2020)

단위: 백만 톤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2. 농업소득

EU의 농업소득은 심각하게 저조했던 2009년에 비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소폭 상승이라도 2020년 EU의 전체 농업소득은 전망기간 동안 2005-2009년의 평균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체 평균값

EU의 농업소득은 심각하게 저조했던 2009년에 비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EU 농업소득 전망(2000-2020)

		2005-2009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명목요소소득	EU-27	100	108.6	109.1	107.9	107.4	107.1	108.5	110.7	110.6	113.7	114.5
	EU-15	100	108.8	108.9	107.2	106.1	105.3	106.4	108.2	107.5	110.4	110.5
	EU-12	100	107.2	109.8	111.7	114.6	117.1	120.3	124.4	127.4	132.2	136.3
임금	EU-27	100	91.9	89.9	87.9	85.9	84.0	82.2	80.4	78.6	76.9	75.2
	EU-15	100	93.1	91.6	90.2	88.7	87.3	85.9	84.6	83.2	81.9	80.6
	EU-12	100	90.9	88.3	85.8	83.4	81.1	78.8	76.6	74.4	72.3	70.3
노동자 1인당 실질농업소득	EU-27	100	110.3	111.3	110.6	110.8	110.2	112.2	115.2	114.9	119.0	119.7
	EU-15	100	109.9	110.0	108.1	106.8	105.6	106.4	108.0	107.1	109.6	109.6
	EU-12	100	108.2	110.8	114.2	119.9	119.5	125.8	133.4	133.9	142.8	144.9

주: 노동자 1인당 실질요소소득 기준

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

은 EU-12¹⁾와 EU-15²⁾ 간의 불균등한 성장 격차를 감추고 있다. EU-15의 평균 농업 소득 성장률은 평년 대비 10%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한 반면, EU-12의 경우 평년 대비 45%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EU 내 농업노동력의 감소는 EU-12와 EU-15 양쪽 모두 농업소득 전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과도기를 겪고 있는 EU-12의 농업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는 여전히 EU-12 회원국의 농업소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불확실성을 도입한 시나리오 분석

모형 및 가정

EU의 이번 전망 발표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가정을 시나리오에 도입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농산물 시장과 농업소득을 전망하는 데 있어 최신의 통계자료 및 정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가장 타당한 가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망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제 시장, 경제적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소득 추정을 위해 모형(model)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보다 강한 암묵적인 가정들이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산물 시장과 농업소득, 특히 선물시장, 경제적 정치적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 등 분석에 도입된 가정들은 이번 전망의 결과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분석에 활용된 OECD/FAO의 AGRINK-COSIMO 모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곡과 유지작물 분야의 수요가 구분되지 않은 점, 특정 부문의 소매·가공 등 공급체인 및 농가규모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의 한계가 남아있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분석 결과

이번 EU의 전망 발표에서는 수요와 공급, 거시경제지표, 유가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가정을 몇 가지 시나리오에 도입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앞 절에서 전망한 앞으로의 EU 농산물 시장에 불확실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 투입재 사용 증대를 통해 단수가 증가하는 시나리오

단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내 공급 증가로 세계시장에서 EU의 교역 포지션이 개선되지만, 농업소득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 부문에서는 사료비용 절감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반면, 곡물 분야는 낮은 가격과 높은 비용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1) 2004년 5월 이후에 가입한 회원국

2) 2004년 5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국

2) 전 세계적 기술개발 속도 향상

기술개발 속도의 향상으로 인해 EU의 교역 포지션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전반적인 단수 증가가 발생하면, EU의 수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3) 가변비용

투입재가격은 세계시장에서 EU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1.5% 미만일 것으로 분석된다.

4) 수요 시나리오: 신흥경제에서의 GDP 성장률 증가

EU 상품시장의 가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결과(5% 이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흥경제에서의 수요 증가는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EU 국내 소비 중 일부분만이 세계시장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EU의 내수시장은 세계시장의 변화에 덜 민감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5) 경제 성장 속도와 유가 등락 등 거시경제 변화

경제 성장 속도와 유가 등락 등의 거시경제 변화는 세계 농산물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유지작물과 식물성 기름에의 가격전이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자료

EU,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0-2020」.